子曰：「君子易事而難說也；說之不以道，不說也；及其使人也，器之。小人難事而易說也。說之雖不以道，說也；及其使人也，求備焉。」

독음 · 자왈 군자이사이난열야 열지불이도 불열야 급기사인야 기지 소인난사이이열야 열지수불이도 열야 급기사인야 구비언

쉬운 풀이(요약) · 군자는 섬기기 쉽지만 도가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며 사람의 장점에 맞게 일을 맡긴다. 소인은 비위 맞추기는 쉬워도 남에게 모든 능력을 요구한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君 임금 군 / 易 바꿀 역 역

事 일 사 사 / 而 말이을 이 / 難 어려울 난 난 / 說 기쁠 열

也 어조사 야 / 之 갈 지 / 不 아닐 불 / 以 써 이 이

道 길 도 도 / 及 미칠 급 급 / 其 그 기 / 使 하여금 사 사

人 사람 인 / 器 그릇 기 기 / 小 작을 소 소 / 雖 비록 수 수

求 찾을 구 구 / 備 갖출 비 비 / 焉 어찌 언 언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